



한국폰트협회, 한글날 기념 세미나 개최

어떤 언어보다 완벽한 한글, 산업표준 없어 사용 혼돈

한국폰트협회(회장 손동원)는 지난 9월 29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디지털 시대, 한글로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한글날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모노타입 특별후원, 대한인쇄문화협회,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글사랑운동본부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정리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이날 행사에서 손동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글은 발전하고 진화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단순히 기록이나 의사 전달 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 역사 그리고 시대의 감성까지 아우르는 유기적 연관성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보화와 산업화라는 디지털 환경의 급변하는 속도에도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윤표 교수가 ‘훈민정음의 다양한 표현방식과 현대적 의미’, 신부용 카이스트 교수가 ‘정보화 시대 한글의 세계 문자화 가능성’, 이용제 계원예술대 교수가 ‘컴퓨터에서 한글 표현의 문제점과 표준화 연구 제안’, 노은유 안그래픽스 타이포그래피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외국어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한글꼴 디자인, 소리체’, 정석원 한국폰트협회 기획위원이 ‘한글 산업 현황과 글꼴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옛 문헌 폰트·디자인, 지금봐도 뒤떨어지지 않아”

홍윤표 교수는 “훈민정음 해례본 이후 한글 서체들은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옛 한글문헌은 폰트나 디자인이 새로운 영역을 넘나들었는데, 본문과 외래어 또는 외국어를 쓸 때에 그 글자 모양을 달리 해 편집했다. 특히 한글전용이 의도적으로 시도된 최초의 문헌인 월인천강지곡은 한글 전용의 초기 모습과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본문, 주석문, 외래어 등을 글자의 크기만을 달리해 편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날 책 편집이나 디자인에서도 옛 문헌을 한번쯤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한글 디자인이나 캘리그래프 등은 이제 큰 유행의 물결을 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나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느 것처럼 한때 유행하고 시들어질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남겨 놓은 훈민정음 및 한글 자료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현대에 주는 의미에 대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